

都市化와 出産力の 低下

目次

- I. 序 論
- II. 都市化 趨勢
- III. 可妊婦人의 居住地 背景
- IV. 居住地背景別 出産力과 婚姻狀態
- V. 結 論

I. 序 論

開發途上國은 人口의 側面에서 보았을 때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人口의 절대수에 있어서의 급속한 증가이고, 둘째는 특히 都市人口의 보다 빠른 증가이다. 人口學者에 의하면 앞으로 개발도상국들은 年 4퍼센트의 都市人口의 증가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며 유우엔의 推計에 의하면 비록 그것이 非現實인 點이 있다고 하겠지만 서기 2000년쯤되면 人口가 2천만이 넘는 도시가 5개 정도는 생긴다고 한다.

이와같은 人口의 都市集中現象은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인 측면에서 그 意味와 影響이 分析될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人口의 都市集中이 家口의 出産力에 미치는 影響을 考察해 보 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農村地域에서의 出産力은 都市보다 높기 때문에 農村人口가 많은 國家에서는 自然히 出産力도 높았다.

그러나 人口가 都市로 集中되면서 즉, 農村을 떠나 都市로 移住하는 人口가 많아지면서 이들 移住者들의 出産行爲는 農村에서의 높은 出産力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出産行態는 低出産力으로 바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點과 관련하여 最近 Ribe-Schultz는 두가지 假說을 發表하고 있다. 첫째, 農村에서 都市로 移住하여 오고 있는 층은 그들의 社會的 特性이 매우 선별적(selectivity)이라는 것이다. 그들의 年齡이나 教育水準, 所得水準이 農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층에 비교하여 差異가 있다는 것이다. 즉 年齡的으로는 보다 젊은층이, 教育水準은 보다 높은층이, 그리고 所得水準도 높은층의 移動이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出産行態는 少子女 指向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移住層의 出産力은 낮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移住者의 出産力은 그들의 社會的 特性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 家族計劃研究院 首席研究員.

都市가 갖는 賃金水準과 所得水準 그리고 物價에 영향받는다라는 것이다.¹⁾ 農村과 都市는 物價, 所得, 賃金에 있어 뚜렷한 差異가 있어 이런 것들이 出産力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農村에서 都市로 移住해온 층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都市生活에 적응되어 가는 過程에서 그들의 出産行爲 역시 都市民의 出産行爲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든지 本稿의 目的은 農村住民의 都市로의 移動과 관련하여 그들의 出産行態의 變化를 실증적으로 확인해 보자는데 있다.

II. 都市化 趨勢

1960年代初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農村은 많은 遊休勞動力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60年代 以後 이룩한 工業化過程에서 農村의 많은 人力이 都市로 흡수되어 이제 우리나라 農村은 農業勞動力이 不足한 상황에 이르렀다.

過去 20年동안(1955년~1975년)의 都市와 農村間의 人口 再分布를 보면 1955年 당시 우리나라 人口의 24.5퍼센트만이 都市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75.5퍼센트는 農村에 거주했었다. 그러나 1975년에 와서 우리나라 총인구 중 都市人口의 비율은 48.4퍼센트로 높아졌고, 農村은 상대적으로 51.6퍼센트로 낮아졌다.

이를 人口의 절대수에서 따져보면 엄청난 都市人口의 증가를 알 수 있다. 1955年 당시 都市人口는 表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528만이 都市에 거주했지만 1975년에는 도시 인구

Table 1. Population Distribution by Residence and Percent Change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1955-1975
都市와 農村間의 人口의 再分布

	1955		1960		1966		1970		1975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	Population	Distribution
Whole	21,526	100.0	24,989	100.0	29,193	100.0	31,469	100.0	34,679	100.0
Urban	5,281	24.5	7,201	28.8	9,980	34.2	13,610	43.2	16,770	48.4
Rural	16,245	75.5	17,788	71.2	19,213	65.8	16,859	56.8	16,909	51.6
Percent Change										
	1955~1960		1960~1966		1966~1970		1970~1975		1955~1975	
Urban	+36.4		+38.6		+36.4		+23.2		+217.6	
Rural	+9.5		+8.0		-7.0		+0.03		+10.2	

1) Ribe, Helena and T.P. Schultz *Migrant and Native Fertility in Colombia*, 1980.

Table 2. Components of Urban Growth
都市人口의 增加要因

Period	Components	Population Increase
1960~1966	Total	2,754,000
	Natural increase	1,178,000
	Net migration	1,136,000
	Annexation	260,000
1966~1970	Total	3,161,000
	Natural increase	846,000
	Net migration	2,315,000
	Annexation	—

Source: Yu, Eui-Young "Components of Urban Growth in Urban Areas of Korea: 1960-1970",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II, 1973.

가 1,677만으로 과거 20년간 1,149만명이 더 증가되었다. 농촌인구는 1955년에 비하여 1975년이 10퍼센트정도 증가된데 반하여 도시인구는 1955년에 비하여 1975년이 217.6퍼센트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와같은 都市人口의 增加를 가져온 要因을 都市人口 자체의 自然增加分,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에 의한 增加分, 그리고 都市의 地域境界의 확충 등으로 나누어 보면 表 2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0~1966년 사이의 경우 都市人口의 增加分 2,754千名중 自然增加가 1,178千名이었고, 移動에 의한 증가가 1,136千名, 都市확충에 의한 것이 260千名으로 되어 있으며, 1966~1970년 사이를 보면 총증가 3,161名에서 自然增加가 846千名이고, 移動에 의한 증가가 2,315千名, 都市 확장에 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都市人口 증가의 주요원인은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에 의한 것이며 이는 1960~1966년 사이보다 1966~1970년사이가 더욱 그러하였다.

都市人口의 증가를 都市 규모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이 1960~1970년사이 3,013千名이 증가되어 전체 都市人口증가 5,744千名の 52.5퍼센트에 해당되고, 부산이 679千名, 인구 10만 이상의 都市地域이 1,593千名, 인구 10만 이하의 小都市가 459千名으로 서울로의 人口集中을 여실히 볼 수 있으며, 특히 인구 10만 이상의 都市地域에서의 증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와같은 都市의 크기에 따른 인구증가를 증가요인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 총 증가분 3,013千名중에서 2,204千名이 農村人口의 流入에 의한 것이고 인구 10만 이상의 都市에서도 총 증가 1,593千名 중에서 847千名이 農村人口의 流入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는 農村人口의 流入보다는 오히려 都市 자체의 지역경계의 확충에 의한 것이 더 많았다.

Table 3. Components of Urban Growth by Size of Cities: 1960-1970
 都市 크기에 따른 人口增加要因

Components	Seoul	Pusan	Large urban areas	Small urban areas	Total
			with population 100,000 and over	with population less than 100,000	
Natural increase	654,000	274,000	672,000	184,000	1,784,000
Net migration	2,204,000	362,000	847,000	64,000	3,477,000
Annexation	155,000	43,000	74,000	211,000	483,000
Total increase	3,013,000	679,000	1,593,000	459,000	5,744,000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工業化—都市化 過程에서 수반되었던 農村人口의 都市 流入이 都市—農村間의 人口의 年齡構造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은 都市人口의 절대수에 있어서의 증가뿐만 아니라 年齡構造의 變化를 가져왔다.

農村人口를 흡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要因이 都市의 工業成長이었던 만큼 都市 就業人口의 增加와 그들의 年齡別 性別 分布를 살펴보았다.

表 4는 1966~1975년 사이의 都市 就業者の 産業別 增加率이다. 이 期間동안 男子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상업 부문에서 각각 154.8퍼센트, 130.5퍼센트, 123.1퍼센트로 증가되었고 女子의 경우는 역시 제조업, 건설업, 상업부문을 270.9퍼센트, 393.9퍼센트, 238.1퍼센트의 증가를 보였다.

이와같은 雇傭機會의 확대에 의한 就業者の 增加와 그들의 年齡分布를 表 5에서 보면 특

Table 4. Growth of Urban Employment by Industry
 都市 就業者の 産業別 增加率

Industry	Increase Rate	
	Male	Female
Agri. Forestry, Fishery	24.9%	90.1%
Mining	4.5	94.7
Manufacturing	154.8	270.9
Construction	130.5	393.9
Electricity, Gas, Water	35.5	241.3
Wholesale, Retail Trade	123.1	238.1
Transport, Comm.	92.5	12.9
Service	48.1	5.8

Table 5. Percent Distribution of Urban Employment by Industry and Age and Sex

都市 就業者의 産業別, 性別, 年齡構成比

Industry	Year	Male			Female		
		15~24	25~44	45+	15~24	25~44	45+
Agri. Forestry, Fishery	1966	17.0	42.2	40.7	13.8	55.6	30.6
	1975	16.2	44.6	39.7	14.1	46.4	39.5
Mining	1966	15.4	69.8	26.9	31.2	59.7	9.1
	1975	14.1	58.8	27.0	22.4	68.0	9.7
Manufacturing	1966	28.3	57.7	14.0	71.1	24.1	4.8
	1975	31.1	59.0	9.9	79.3	17.0	3.7
Construction	1966	10.0	61.6	28.5	32.6	47.7	19.8
	1975	14.8	53.2	31.1	4.1	92.4	3.6
Electricity, Gas, Water	1966	11.2	72.1	16.7	75.0	25.0	—
	1975	10.6	73.1	16.2	81.2	15.2	3.6
Wholesale Retail Trade	1966	12.1	61.5	26.4	12.0	85.9	26.0
	1975	15.0	61.1	24.0	26.0	51.7	22.4
Transport Comm.	1966	9.7	76.5	13.8	21.6	4.7	73.7
	1975	11.2	74.1	14.7	71.0	15.9	13.2
Service	1966	7.5	70.3	22.2	63.3	30.5	0.8
	1975	13.1	67.2	20.0	60.0	30.4	9.6

히 제조업 부문에 있어 15歲~24歲의 젊은 연령층에서의 就業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女子의 경우는 전체 제조업부문 취업자의 79.3퍼센트가 이 연령층이었다.

工業化 過程에서 나타난 都市—農村間의 人口의 年齡分布를 表 6에서 보면 1960년 당시 都市人口중 男子의 경우 40.4퍼센트가 0歲~14歲 연령층 이었고, 46.9퍼센트가 15歲~44歲 연령층이었으나, 1975년에는 0歲~14歲 연령층이 36.6퍼센트로 줄어들었고 반면 15歲~44歲 연령층은 51.8퍼센트로 늘어났다. 한편 都市人口중 女子의 경우를 보면 1960년에 있어 0歲~14歲연령층이 38.0퍼센트였으나 1975년에는 33.7퍼센트로 줄어들었고, 15歲~44歲 연령층에서는 48.1퍼센트에서 52.3퍼센트로 증가되었다. 결국 過去 15년간(1960~1975년) 都市人口는 15歲~44歲 연령층이 많아졌으며 상대적으로 農村의 경우는 45歲 以上 연령층이 많아졌고, 15歲~44歲 연령층은 줄어들었다.

Table 6. Age Sex Composition of Urban and Rural Population: 1960-1975

都市와 農村人口의 性別 年齡構造의 差異

Age	1960		1975		Urban-Rural Difference*		
	Urban	Rural	Urban	Rural	1960	1975	1960~1975
Male							
0-14	40.4	42.7	36.6	41.9	94.6	87.3	-7.3
15-44	46.9	40.6	51.8	40.7	115.5	127.3	11.8
45-64	10.9	12.8	9.6	13.5	85.1	71.1	-14.0
65+	1.8	3.9	2.0	3.9	46.1	51.2	5.1
Female							
0-14	38.0	39.7	33.7	40.3	95.7	83.6	-12.1
15-44	48.1	41.4	52.3	37.8	116.1	138.3	22.2
45-64	10.7	14.1	10.9	15.8	75.9	68.9	-7.0
65+	3.2	4.8	3.1	6.1	66.7	50.8	-15.9

* 農村을 100으로 본 都市의 比率

Ⅲ. 可妊婦人의 居住地 背景

앞에서 우리나라 都市人口의 증가 추세와 특히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에 기인된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특히 都市—工業化 過程에서 産業人力의 흡수와 이로 인한 都市—農村間의 人口의 年齡構造의 變化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出産力과 관련하여 出産可能年齡層의 有配偶 婦人들의 居住地 背景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장기거주자란 農村에서 都市로 移住해온 期間이 오래된 층으로서 그들의 現居住地와 5年前居住地가 同一地域이기는 하나 그들의 出生地가 現居住地와 다른 경우이다. 한편 최근 移住層이란 그들의 出生地와 5年前 居住地가 同一 地域이고 그러나 그들의 現居住地가 5年前 居住地와 다른 경우로서 결국 農村에서 最近 5年 以內에 都市로 移住해온 층이다.

우선 우리나라의 有配偶 可妊婦人(20歲~44歲의 有配偶婦人)들의 居住地背景을 파악하기 위하여 그들의 現 居住地에 따라 서울, 부산, 인구 40만 以上の 大都市, 인구 10만 以上の 中도시, 인구 10만 以下の 小도시,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나누고 1970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조사시점을 기준으로한 5년전 居住地자료를 이용하여 장기거주자와 최근 이주층으로 나누었다.

Table 7. Distribu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and Current Residence
 우리나라 有配偶 可妊婦人의 年齡別, 現居住地別 分布 : 1970年基準

Current Residence	Age					Total
	20~24	25~29	30~34	35~39	40~44	
Seoul	20.8	23.0	19.3	17.9	16.2	19.6
Pusan	7.9	7.4	6.7	6.0	5.9	6.8
Large Cities	9.0	9.3	9.0	8.6	7.2	8.7
Medium Cities	5.4	5.4	5.0	5.1	5.3	5.2
Small Cities	3.9	3.7	3.8	3.7	3.8	3.8
Rural	52.9	51.1	56.2	58.6	61.6	56.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表 7은 우리나라 有配偶 可妊婦人들을 1970年을 기준으로 했을 때 現居住地別로 分布이다. 우리나라 有配偶 可妊婦人의 19.6퍼센트가 서울에 居住하고 있으며, 부산이 6.8퍼센트, 인구 40만 以上の 大都市 地域이 8.7퍼센트, 인구 10만 以上の 中都市가 5.2퍼센트, 인구 10만 以下の 小都市가 3.8퍼센트였고, 농촌지역이 56.0퍼센트였다.

그러나 이들 婦人의 연령계층별로 나누어 보면 20~24歲 연령층의 경우 서울이 20.8퍼센트, 부산이 7.9퍼센트, 인구 40만 以上の 大도시가 9.0퍼센트 등으로 농촌지역에 비하여 이 연령층 婦人은 도시지역이 많으며 한편 25~29歲 연령층에서도 서울이 23.0퍼센트, 부산이 7.4퍼센트, 인구 40만 以上の 大都市가 9.3퍼센트로 이 연령층은 도시지역이 많다. 결국 都市地域은 農村에 비하여 出産力이 가장 높은 연령층인 20~29歲의 젊은 婦人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한편 有配偶 可妊婦人들의 移住背景을 表 8에서 살펴보면 現居住地가 서울인 婦人의 21.2퍼센트만이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에서 살고 있었으며, 可妊婦人의 50.5퍼센트는 農村에서 移住해온 層이었다. 이를 長期居住者와 最近移住者로 나누어 보면 34.6퍼센트가 장기거주자였으며 15.9퍼센트가 최근 이주자였다.

한편 婦人의 年齡層別로 移住背景을 보면 20~24歲 연령층에서는 56.6퍼센트가 農村에서 移住해온 層인데 장기거주자가 25.0퍼센트, 최근 이주자가 31.6퍼센트로 이 연령층에서 최근 農村에서 移住한 婦人이 많았다. 다른 연령층에서도 대략 반(半)정도가 農村에서 온 婦人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최근 이주자보다 장기거주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可妊婦人의 약 반이상이 農村에서 移住한 婦人이었으며 移住背景에서도 37.1퍼센트가 장기거주자였고, 14.8퍼센트가 최근이주자였다. 각 연령층별 분포는 서울과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만 이상의 중도시의 경우를 보면 대도시의 경우 22.0 퍼센트만이 그 지역 출신이었고, 중도시는 14.4퍼센트로서 중도시의 경우 오히려 대도시보다 그 지역에서 출생하여 현재 그 지역에 살고있는 소위 본토박이(Native Born)가 적었고 전체 可妊婦人의 58.6퍼센트가 農村에서 온 婦人이었다.

Table 8. Distribu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Current Residence and Migration Status

우리나라 有配偶可妊婦人의 移住背景 : 1970年基準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Age					Total
		20~24	25~29	30~34	35~39	40~44	
Seoul	Nonmigrant	20.1	22.3	21.7	20.0	20.9	21.2
	Migrant from rural area	56.6	50.0	50.5	48.7	47.6	50.5
	Longterm migrant	25.0	30.7	37.9	38.8	39.7	34.6
	Recent migrant	31.6	19.3	12.6	9.9	7.9	15.9
Pusan	Nonmigrant	24.0	23.4	19.9	21.4	21.0	22.1
	Migrant from rural area	57.0	52.0	52.3	51.0	47.3	51.9
	Longterm migrant	22.3	33.4	40.5	41.8	47.3	37.1
	Recent migrant	34.7	18.6	11.8	9.2	—	14.8
Large Cities	Nonmigrant	22.3	23.0	21.6	21.2	21.7	22.0
	Migrant from rural area	57.5	54.8	54.4	56.1	57.6	55.8
	Longterm migrant	20.2	32.0	40.6	44.2	47.8	37.5
	Recent migrant	37.3	22.8	13.8	11.9	9.8	18.3
Medium Cities	Nonmigrant	12.9	16.2	13.5	14.1	15.0	14.4
	Migrant from rural area	57.6	58.2	57.5	61.3	58.6	58.6
	Longterm migrant	23.4	32.8	41.6	49.6	49.3	39.9
	Recent migrant	34.2	25.4	15.9	11.7	9.3	18.7
Small Cities	Nonmigrant	23.5	23.9		25.2	24.9	24.9
	Migrant from rural area	56.0	57.3	51.4	51.3	53.1	53.6
	Longterm migrant	15.0	31.7	38.8	51.3	53.1	38.9
	Recent migrant	41.0	25.6	12.6	—	—	14.7
Rural	Stayer	88.5	88.2	89.9	91.1	91.8	90.0
	Migrant from urban area	—	4.1	3.0	2.7	2.3	2.7
	Longterm migrant	—	2.8	3.0	2.7	2.3	2.4
	Recent migrant	—	1.3	—	—	—	0.3

한편 인구 10만 以下の 소도시의 경우를 보면 전체 可妊婦人의 24.9퍼센트가 그 지역출신이었고, 53.6퍼센트는 農村移住者였다. 특히 20~24歲 연령층에서는 이 연령층 부인의 41.0퍼센트가 최근 농촌으로부터 移住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의 크기에 불구하고 可妊婦人의 過半數가 農村에서 출생하여 移住해 온 사람들이며 그 중에서도 移住해온 期間이 얼마되지 않는 최근 이주자가 많은 都市는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와 인구 10만 이상의 중도시로서 그 절대수에 있어서는 서울, 부산에 비하여 적지만 구성비에 있어서는 높았다.

농촌지역을 살펴보면 전체 가임부인의 90퍼센트가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都市地域에서 移住해온 경우는 극히 적어 2.7퍼센트에 불과했다.

다음에는 有配偶可妊婦人들의 居住地背景에 따른 學歷分布를 表 9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의 경우 농촌에서 이주해온 層과 서울 본래의 거주자간의 뚜렷한 學歷水準의 差異를 볼 수 있다. 20~24歲 연령층의 부인일 경우 서울에 본래 거주하던 사람은 50.7퍼센트가 고교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농촌에서 이주해온 경우는 장기거주자가 18.5퍼센트, 최근이주자가 12.3퍼센트에 불과했다. 農村에서 移住한 層의 경우 過去 오래전에 이주해온 층과 최근 이주층간의 學歷水準의 差異는 젊은 연령층의 부인일 경우 거의 없었고 35歲 以後 연령층에서는 최근 이주된 경우보다는 過去 오래전에 이주해온 층이 학력수준이 높았다.

부산의 경우를 포함한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를 보면 이들 都市地域의 그 지역태생 婦人(Native Born)들의 教育水準이 서울태생 婦人(Native Born)의 교육수준에 비하여 훨씬 낮았으며 이들 都市地域에서의 農村에서 移住해온 層의 教育水準은 서울로 移住한 農村婦人들의 教育水準과 비교하여 뚜렷한 差異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음 農村婦人들 중에서 都市地域으로 移住한 婦人과 農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層의 教育水準을 비교하면 뚜렷한 差異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4歲의 婦人일 경우 農村에서 서울로 移住한 층은 28.7퍼센트가 중학교를 나왔고, 18.5퍼센트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나 이 연령층에서 농촌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층은 10.3퍼센트가 중졸이고, 3.5퍼센트만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이와같은 教育水準의 差異는 연령이 많아져도 마찬가지인데 30~34歲 연령층의 경우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한 층은 23.5퍼센트가 중학졸업자이고, 18.2퍼센트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인데 비하여 농촌에 머물러 있는 층은 5.8퍼센트가 중학졸업자이고, 1.7퍼센트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졌다.

V. 居住地 背景別 出産力과 婚姻狀態

앞에서 우리나라 有配偶 可妊婦人들의 居住地 背景을 都市—農村間의 人口移動과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며 그들의 教育水準에서의 差異를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앞에서 分類된 居住

Table 9. Distributio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Educational Level, Age, 우리나라 有配偶可妊婦人의 居住地背景別 學歷水準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20~24				25~29			
		None	Primary	Middle	High+	None	Primary	Middle	High+
Seoul	Nonmigrant	—	21.1	23.2	50.7	1.2	25.7	22.6	50.5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5	51.3	28.7	18.5	2.1	49.3	27.6	21.0
	Recent migrant	3.0	54.5	30.2	12.3	2.4	52.9	29.4	15.3
Pusan	Nonmigrant	2.1	41.2	39.2	17.6	4.8	44.0	25.3	25.9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1	53.3	31.1	15.5	3.4	5.6	29.9	13.0
	Recent migrant	3.6	57.1	29.3	10.0	3.8	68.2	22.7	5.3
Large Cities	Nonmigrant	2.9	47.6	23.3	26.2	3.4	44.4	22.4	29.8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1	44.1	29.0	25.8	5.3	55.4	23.5	15.8
	Recent migrant	1.7	66.3	26.3	5.8	5.4	62.1	20.2	12.4
Rural	Stayer	9.0	77.2	10.3	3.5	15.0	72.6	9.2	3.0
	Migrant from urban area								
	Longterm migrant	10.2	64.4	16.9	8.5	9.3	69.8	14.0	7.0
	Recent migrant	6.7	50.0	23.3	20.0	—	—	—	—

地 背景에 따라 可妊婦人들의 出産力에서의 差異와 結婚狀態를 알아 보고자 한다.

表 10은 15歲以上 女性들의 그들의 居住地背景에 따른 既婚率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19歲 以下에서의 結婚率을 보면 居住地背景에 관계없이 대체로 5퍼센트 이내의 낮은 結婚率을 보이고 있으며 20~24歲 연령층에서의 結婚率은 居住地 背景에 따라 差異가 있는데 우선 農村에서 최근 都市地域으로 移住된 층인 경우 서울로 온 경우는 이 연령층에서 42.6퍼센트가 결혼을 했고, 부산의 경우는 65.6퍼센트가,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가 48.2퍼센트, 인구 10만 이상의 중도시가 64.2퍼센트,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가 73.2퍼센트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연령층에서 농촌에 머물러 있는 女性은 48.5퍼센트가 결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결국 農村에서 都市로 이주한 女性일 경우 結婚率이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農村에서 移住해 온 층이라 하더라도 이미 都市에 와서 오래 살았던 경우는 20~24歲 연령층에서 結婚率이 훨씬 낮아져서 대조적이다. 즉 서울의 경우 다같이 농촌에서

Current Residence and Migration Status

30~34				35~39				40~44			
None	Primary	Middle	High+	None	Primary	Middle	High+	None	Primary	Middle	High+
1.4	29.1	24.6	44.6	3.5	38.3	21.2	36.9	7.2	40.7	24.0	37.6
4.5	53.8	23.5	18.2	8.6	52.7	19.9	18.6	11.6	56.1	19.0	13.3
7.3	58.8	19.2	14.7	5.8	70.8	14.9	8.4	22.6	64.3	13.1	—
5.2	50.4	25.2	19.2	9.8	55.4	17.9	17.0	19.8	56.8	12.3	11.1
7.7	59.9	21.9	10.6	16.5	59.2	17.0	7.3	21.4	62.1	10.4	6.0
8.8	73.8	12.5	5.0	22.9	64.6	4.2	8.4	—	—	—	—
4.6	55.6	23.0	16.8	11.9	59.7	12.6	15.7	23.5	60.8	9.8	5.9
7.6	59.9	22.8	9.7	11.8	63.1	18.1	6.9	24.4	63.1	10.2	2.2
10.4	65.6	14.4	9.6	19.1	55.1	13.5	12.3	26.1	58.7	6.5	8.7
26.3	66.3	5.8	1.7	41.8	54.0	3.1	1.1	62.7	34.9	1.6	0.7
24.2	60.6	7.6	—	51.7	44.8	1.7	1.7	64.1	33.3	—	—
—	—	—	—	—	—	—	—	—	—	—	—

이주해왔더라도 오래된 사람들은 37.2퍼센트가 20~24歲 연령층에서 결혼하고 있으나 최근 이주해온 사람들은 42.6퍼센트로 높았고 부산의 경우에서도 장기거주자가 최근 이주자에 비하여 結婚率이 낮았다. 특히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의 경우 장기거주자의 결혼율은 36.6 퍼센트인데 비하여 최근 이주층은 73.2퍼센트로 그 差異가 심하였다.

한편 都市로 移住해온 층과 都市에 원래 살던 층과의 結婚率을 보면 일반적으로 都市의 크기에 관계없이 移住해온 층이 都市에 원래 살던 층보다 결혼 연령이 빨라지고 있었다.

表 11은 우리나라 有配偶 可妊婦人들의 居住地 背景에 따른 平均 出産兒數(Children Ever Born)이다.

우선 農村에 머물러 있는 婦人들과 農村을 떠나 都市에 移住한 婦人들의 年齡層別 平均 出産兒數를 비교해 보자.

農村에 머물러 있는 婦人들은 20~24歲 연령층에서 1.13명의 出産兒를 갖고 있으며 25~29歲 연령층에서는 2.54명의 出産兒를, 30~34歲 연령층에서는 4.02명을, 35~39歲 연령층

Table 10. Proportion of Ever Married Women by Age, Current Residence and Migration Status

15歲以上 女性の 居住地 背景에 따른 既婚率(%)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Age		
		15~19	20~24	25~29
Seoul	Nonmigrant	0.6	24.5	81.2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2.2	37.2	85.0
	Recent migrant	2.3	42.6	87.9
Pusan	Nonmigrant	0.5	30.2	87.9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4	42.9	92.8
	Recent migrant	2.5	65.6	97.1
Large Cities	Nonmigrant	1.1	27.6	80.2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9	29.5	90.6
	Recent migrant	2.7	48.2	95.3
Medium Cities	Nonmigrant	1.2	26.9	80.2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4.7	46.5	88.8
	Recent migrant	3.0	64.2	91.1
Small Cities	Nonmigrant	1.9	32.4	86.4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3.4	36.6	94.2
	Recent migrant	6.1	73.2	94.8
Rural	Stayer	3.9	48.5	95.3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	67.7	95.2
	Recent migrant	—	76.9	96.8

에서는 5.11名. 40~44歲 연령층에서는 5.97名의 出産兒를 갖고 있는데 비하여 農村을 떠나 서울로 온 婦人의 경우 장기거주자일 경우 20~24歲 연령층에서 1.00名을, 25~29歲에서 1.91名을, 30~34歲에서 3.06名을, 35~39歲에서 3.85名을, 40~44歲에서 4.65名을 出産하고 있어 모든 年齡層에서 農村에 있는 婦人보다는 農村을 떠난 婦人들의 出産力이 낮

Table 11. Children Ever Bor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우리나라 有配偶可妊婦人들의 居住地 背景別 平均 出產兒數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Age				
		20~24	25~29	30~34	35~39	40~44
Seoul	Nonmigrant	0.92	1.69	2.74	3.63	4.32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00	1.91	3.06	3.85	4.65
	Recent migrant	0.83	1.72	3.18	4.17	4.99
Pusan	Nonmigrant	0.82	1.83	3.07	4.09	4.40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14	2.06	3.40	4.29	5.03
	Recent migrant	0.76	1.87	3.03	4.21	—
Large Cities	Nonmigrant	0.83	1.85	3.20	3.83	4.80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0.86	2.04	3.37	4.23	5.22
	Recent migrant	0.90	1.84	3.09	4.55	5.83
Medium Cities	Nonmigrant	0.94	2.18	3.52	4.84	5.54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03	2.28	3.50	4.79	5.51
	Recent migrant	0.94	1.81	3.27	4.67	4.81
Small Cities	Nonmigrant	1.11	2.16	3.20	4.53	5.34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1.20	2.37	3.60	4.79	5.68
	Recent migrant	0.89	1.87	3.56	—	—
Rural	Stayer	1.13	2.54	4.02	5.11	5.97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2.39	3.69	4.83	5.24	6.31
	Recent migrant	1.37	—	—	—	—

음을 알 수 있고 다같이 農村을 떠난 婦人들이라도 都市에서 오래 산 경우와 최근 이주해 온 경우를 비교하면 都市에 오래 산 경우가 약간 낮은 出產力을 보였다.

그런데 여기서 Ribe-Schultz의 假說을 생각해 보면 비록 農村背景을 가진 婦人들이라도 都市에 와서 오래 살면 都市婦人의 出產力을 닮아간다는 Adaptation hypothesis를 제시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農村을 떠나 서울에서 오래 居住한 婦人들의 出産力을 서울 본토박이 (Native Born)의 出産力과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農村에서 온 婦人들의 出産力이 모든 연령층에서 약간씩 높게 나타났다. 이와같은 現象은 비단 서울 뿐만 아니라 다른 都市地域으로 移住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農村을 移住해서 都市로 온 婦人들의 出産力이 都市 婦人의 出産力에 수렴(lou-verge)해 간다는 Ribe-Schultz의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지며 이를 입증하는 또 하나의 事實은 移住者로서 都市에 장기 거주한 婦人과 최근 이주해온 婦人의 出産力을 비교했을 때 서울을 제외한 모든 都市地域에서 오히려 최근 이주자의 出産力이 낮다는 點이다. 즉 都市 居住期間에 비례하여 出産力이 낮아지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로 移住해온 婦人들의 出産力이 낮아진 것은 그들의 社會的 特性 즉 移動에서 나타나는 선별성(selectivity)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一例로 表 12는 可妊婦人의 居住地 背景과 教育水準에 의한 平均 出産兒數를 보여주고 있다. 이 表에 의하면 우리나라 婦人의 出産力은 居住地 背景에 관계없이 一般的으로 教育

Table 12. Children Ever Born of Currently Married Women by Age, Education, Current Residence and Migration Status
우리나라 有配偶可妊婦人들의 居住地 背景과 教育水準에 따른 平均 出産兒數

Current Residence	Migration Status	25~29			30~34		
		Primary	Middle	High+	Primary	Middle	High+
Seoul	Nonmigrant	2.01	1.86	1.54	2.93	2.99	2.55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2.11	1.82	1.52	3.25	3.17	2.86
	Recent migrant	1.95	1.55	1.22	3.19	3.17	2.86
Pusan	Nonmigrant	2.03	2.05	1.31		3.26	2.40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2.18	1.85	1.88	3.54	3.18	2.92
	Recent migrant	2.07	1.27	—	3.03	—	—
Large Cities	Nonmigrant	2.03	1.93	1.59	3.35	3.09	3.13
	Migrant from rural area						
	Longterm migrant	2.06	2.06	1.83	3.57	3.07	3.07
	Recent migrant	1.99	1.68	—	3.22	—	—

水準이 높을 때 出産力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말해서 農村 婦人이라도 教育水準이 높을 때 出産力은 낮기 때문에 農村에서 비교적 教育水準이 높은 층이 移動될 때 教育으로 인하여 出産力이 낮아지게 된다.

V. 結 論

過去 20年間(1955~1975) 都市人口의 증가는 매우 급속하여 1955年 당시 都市人口 528만이 1975년에는 1,677만으로 늘어나 1,149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증가되었다.

그런데 이와같은 都市人口의 증가는 都市자체내의 인구의 자연증가도 있겠지만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移動에 의한 것이 그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農村人口의 都市로의 流入은 都市-農村間의 人口의 年齡構造를 바꾸어 놓고 있는데, 農村은 年少人口와 老年人口가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都市는 生産活動人口가 많아졌다. 또한 都市의 生産活動人口의 증가는 그들이 대부분 出産年齡層의 人口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都市에서의 出産兒數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都市에 居住하고 있는 有配偶 可妊婦人(20~44歲까지)들의 居住地 背景을 보면 現在(1970年 기준) 서울에 居住하고 있는 可妊婦人의 50.5가 農村에서 移住해온 층이며 연령층별로 보았을 때 20~24歲 연령층인 경우 56.6퍼센트, 25~29歲 연령층에서는 50.0퍼센트가, 30~34歲 연령층에서는 50.5퍼센트가 農村에서 왔다.

한편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도 有配偶 可妊婦人의 55.8퍼센트가 農村에서 移住해 왔으며, 인구 10만 이상의 중도시 및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에서도 각각 57.6퍼센트와 56.0퍼센트가 農村에서 왔다.

이와같은 막대한 農村人口의 都市流入은 우리나라 可妊婦人의 出産力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우선 農村에 머물러 있는 婦人들과 都市로 移住해온 婦人들의 出産力을 보면 都市로 移住한 婦人의 出産力이 훨씬 낮았다.

여기서 우리는 Ribe-Schultz의 두가지 假說을 검토해 왔다. 즉 都市로 移住한 婦人의 出産力이 낮았던 理由는 그들의 社會的 特性(移動에 있어서의 Selectivity) 때문인가 아니면 그들의 都市 適應(Adaptation)에 기인된 것인가?

農村으로부터 移住해온 婦人들의 出産力이 都市 婦人들의 出産力에 수렴되어지는가를 살펴 보기 위하여 비록 農村에서 출생하였지만 都市에서 오래 居住한 婦人들의 出産力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都市 婦人들의 出産力보다는 높았다. 따라서 都市 適應效果(Adaptation Effect)는 크게 작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되며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우 農村을 떠나는 婦人의 教育水準을 보더라도 農村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층에 비하여 월

등 높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移住者의 特性에서 오는 出産力의 감소가 더 크게 작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參 考 文 獻

經濟企劃院, 經濟活動人口年報, 1977.

ESCAP, Migration, Urbanization and Develop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Report, no. 1, 1980.

Lee, Bun Song, and Stephen Farber, *Investigation of the Influence of Rural to Urban Migration on Migrant's Fertility in Less-Developed Countri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1980.

<Abstract>

Urbanization and Fertility Reduction in Korea

Hyun Sang Moon*

During last 20 years(1955~1975) growth of urban population was very rapid in Korea. According to the population census in 1955, urban population was less than 6 million. However, it has been increased to more than 16 million in 1975, which means additional increase of 10 million population in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impact of this rapid growth of urban population on national fertility change.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 fertility of urban migrant was far below than their counterpart of rural women. To investigate this phenomena, Ribe-Schultz hypothesis was tested to show whether selectivity or adaptation was the main reason of fertility reduction of urban migrants.

According to our data the fertility of urban migrant does not converge to urban native born even though their duration of residence in urban area was long enough. However we found that there was big difference in educational background between urban migrant and rural stayer.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is that selectivity of migration was more influential to the fertility reduction of urban migrants.

* Senior Researcher, KIFP.